월선헌십육경가(月仙軒十六景歌) / 신계영

☑ **핵심 정리**

갈래 양반 가사, 서정 가사, 정격 가사, 은일 가사

성격 서정적, 묘사적, 예찬적, 자연 친화적

운율 3(4)·4조, 4음보 연속체

주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전원 생활의 즐거움

특징 ① 월선헌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풍경과 전원 생활의 모습을 노래
② 말을 건네는 형식을 사용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냄
④ 유교의 충의사상이 드러남

◇ **구성**

1. 서사 (1-20행) 전원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과 전원에 대한 태도
2. 본사1/ 춘경 무한천의 봄빛(21-23행)
   긴 들의 빗발(24-27행)
   서봉의 소나무(28-34행)
   금오산 열두 봉우리(35-40행)
3. 본사2/ 하경 제방의 풀빛(41-43행)
   목동 피리소리의 한흥(44-46행)
   금오산의 원경(47-51행)
4. 본사3/ 추경 들의 가을빛(52-59행)
   호두포의 물굽이(60-64행)
5. 본사4/ 동경 원근의 설경(65-75행)
   대밭의 안개(76-84행)
   석문봉의 석양(85-87행)
   사포의 다리(88-89행)
   용산의 절(90-92행)
   다리 건너 먼산(93-95행)
   월선헌 달빛(96-113행)
6. 결사
(114-123행)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원문	현대어 해석
1. 서사 **(전원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과 전원에 대한 태도)**	
오산서烏山西 외로운 ᄆᆞ을 이 내의 토구菟裘로다 석전모옥石田茅屋애 종로終老호랴 기약期約터니 명강名疆이 힘이 이셔 십재十載를 분주ᄒᆞ니 천장홍진千丈紅塵애 검은 머리 다 새거다 전원田園이 거츨거든 송국松菊을 뉘 갓고며 구맹鷗盟이 차 잇거니 학원鶴怨이라 업ᄉᆞᆯ소냐 여관旅館 청등靑燈애 장석음莊舃吟을 제 뉘 알리 환해풍랑宦海風浪이 졸연猝然히 이러나니 저어岨峿ᄒᆞᆫ 고종孤蹤이 죄罪는 어이 짓돗던고 명시부견明時負譴ᄒᆞ야 더딘 모미 되야시니 지지遲遲ᄒᆞᆫ 행색行色이 권련眷戀ᄒᆞ다 어이하리 서호구업西湖舊業에 필마匹馬로 도라오니 적막寂寞ᄒᆞᆫ 황촌荒村에 파옥수간破屋數間 뿐이로다 어와 이 생애生涯 이리ᄒᆞ야 어이ᄒᆞ리	금오산 서쪽의 외로운 마을(화자의 위치) 이내 몸이 물러나 지내는 곳이로다. 돌밭을 매고 초가에서 늙으리라 기약하였는데 명예욕을 이기지 못해 십년을 분주하게 지내니 천 길 붉은 먼지 속(속세)에 검은 머리가 다 세었구나. 거친 시골에서 소나무와 국화를 누가 가꿀 것이며 갈매기와의 약속(전원에서 살겠다는)을 차 버렸으니 학의 원망이 없겠느냐? 여관의 푸른 등에 (초나라 장석이란 자가) 고향을 그리던 슬픈 노래를 누가 알리 환해풍랑(벼슬길의 시련을 비유)이 갑자기 일어나니 틀어져서 어긋난 외로운 신세가 죄는 어찌 지었던가? 밝은 시절에 견책(탄핵)을 자주 받아 더딘 몸(던진 몸, 죄인의 몸)이 되었으니 / 오래 끌기만 한 (보잘 것 없는) 행색이 고향을 그리워한들 어찌하리? 서호의 옛집에 혼자서 돌아오니 적막하고 황폐한 마을에 무너진 집 몇 칸 뿐이구나. 아 이 평생, 이리하여 어찌하리?
2. 본사1 춘경	
원림園林 노픈 고ᄃᆡ 소당小堂을 지어내니 헌창軒窓이 소쇄瀟灑ᄒᆞᆫ대 안계眼界조차 너ᄂᆞᆯ시고 삼경三徑송황松篁은 새 빗출 씌여잇고 십리十里 강산江山이 망중望中에 버러시니 월호풍령月戶風櫺에 일업시 비겨이셔 듯거니 보거니 승취勝趣도 하도 만타 호천湖天 봄빗치 두병斗柄조차 도라오니 양파陽坡 가는 풀이 새 엄이 프ᄅᆞ럿고 사정沙汀 약ᄒᆞᆫ 버ᄃᆞᆯ 녯 가지 누울 저긔	집안 정원 높은 곳에 작은 집을 지으니 집의 창문이 맑고 깨끗하니 눈 앞이 넓구나 세 갈래 오솔길에 소나무와 대나무밭은 새 빛을 띠고 있고 십리 강산이 눈 앞에 펼쳐져 있으니 달빛 속의 집, 바람에 비낀 난간에 일없이 기대어 있으니 듣거니 보거니 아름다운 정취가 많기도 많구나. 호수 위 하늘에 어린 봄빛, 북두칠성 자루조차 돌아오니(비치니) 볕든 언덕 가는 풀은 새 움이 푸르렀고 모래톱 가는 버들 옛 가지가 새 가지가 될 때

강성江城 느즌 빗발 들흐로 건너오니 청상淸爽ᄒᆞᆫ 져 경개景槪 시흥詩興도 돕거니와 약포산전藥圃山田을 ᄒᆞ매면 가리로다 이봐, 아이들아 소를 좋게 먹여 보자. 여왜씨女媧氏 하ᄂᆞᆯ 깁던 늘근 돌히 나마 이셔 서창西窓 밧 지척咫尺의 난봉亂峰이 되어시니 싸커니 셔거니 기괴奇怪도 ᄒᆞᆫ뎌이고 장송長松 흣션 속의 픠기마다 고지 피니 적성赤城 아젹비에 블근 안개 저ᄌᆞ난 듯 술 ᄎᆞ고 노ᄂᆞᆫ 사람 뷘 날 업시 올라가니 난만爛漫ᄒᆞᆫ 춘광이 몃가지나 샹톳던고 금오산金烏山 십이봉十二峰이 대야大野의 둘너시니 ᄂᆞᄂᆞᆫ ᄃᆞᆺ 머므ᄂᆞᆫ ᄃᆞᆺ 기상氣象도 기승奇勝ᄒᆞ다 다사多事ᄒᆞᆫ 춘람春嵐이 취대翠黛예 빗겨 이셔 모ᄃᆞ락 흣ᄐᆞ락 태도態度도 할셔이고 창연蒼然ᄒᆞᆫ진면목眞面目이 뵈ᄂᆞᆫ ᄃᆞᆺ 숨ᄂᆞᆫ 양은 용면호수龍眠好手로 수묵병水墨屛을 그렷ᄂᆞᆫ ᄃᆞᆺ	강 언덕에 늦은 빗발 먼 들에서 건너 오니 맑고 시원한 경치가 시흥도 돕거니와 약초 심은 산밭을 왠만하면 갈겠구나. 이봐, 아이들아 소를 좋게 먹여 보자. 여와(중국 창세 신화 여신)씨가 하늘 깁던 늙은 돌이 남아있어 서창 가까운 곳에 어지럽게(아름다운) 산봉우리가 되었으니 쌓거니 서 있거니 기괴도 하구나 큰 소나무 흩어 선 속 포기마다 꽃이 피니 꽃성이 아침 비에 붉은 안개 젖었는 듯 술병 차고 노는 사람 빈 날 없이(매일) 올라가니 흐드러진 봄 빛에 몇 가지나 그 모양을 본떴던가? 금오산 열두 봉우리 넓은 들에 펼쳤으니 나는 듯 머무는 듯 기상(모양)도 기묘하다 바쁜 봄 아지랑이가 미인의 눈썹(아지랑이의 보조관념)인양 비껴 날아 모이고 흩어지고 모양도 많구나 새파란 참모습이 보이는 듯 숨는 모습은 용면(중국 송의 화가 '이공린')의 솜씨로 병풍을 그린 듯.
3. 본사2 하경 잔화殘花ᄂᆞᆫ 붓셔 디고 백일白日이 점점 기니 장제長堤 눈엽嫩葉이 새 그ᄂᆞᆯ 어릴 저긔 형비荊扉ᄅᆞᆯ 기픠 닷고 낫좀을 잠깐 드니 교만驕慢ᄒᆞᆫ 굇고리 ᄭᅵ을 주리 무ᄉᆞ 일고 긔파奇葩 ᄀᆞᄂᆞᆫ 길히 초연草煙이 기픈 고ᄃᆡ 목적牧笛 삼롱성三弄聲이 한흥閑興을 도와낸다 오서산烏棲山 두렷ᄒᆞᆫ 봉峰 반공半空의 다하시니 건곤원기乾坤元氣ᄂᆞᆯ 네 혼자 타 잇고야 조모朝暮애 좀긴 안개 바라보니 기이奇異ᄒᆞ다 몃 번 시우時雨되야 세공歲功을 일웟ᄂᆞᆫ다	시든 꽃은 벌써 지고 낮이 길어지니 긴 둑 어린 잎이 새 그늘 어릴(드리울) 적에 가시 문짝 깊이 닫고 낮잠을 잠깐 드니 봄내는 꾀꼬리가 (봄잠을)깨우니 무슨 일인가? 기이한 꽃 핀 좁은 길, 풀그늘 우거진 곳에 목동 피리 삼롱성으로 한흥을 도우는구나. 오서산 뚜렷한 봉우리 허공에 닿았으니 천지 가득한 기운 너 혼자 타 있구나. 아침 저녁 잠긴 안개 바라보니 기이하다. 때 맞춘 몇 번의 비에 한 해 농사 이루었구나.

4. 본사3 추경	
오동梧桐 닙히 디고 흰 이슬서리 되니	오동의 잎이 지고 흰 이슬이 서리 되니
서담西潭 기픈 골애 추색秋色이 느저 잇다	서쪽 연못 깊은 골에 가을 빛이 늦어(짙어) 있다.
천림千林 금엽錦ᄫ葉이 이월화二月花ᄅᆞᆯ 브놀소냐	온 산 단풍잎이 이월의 꽃을 부러워 하겠는가?
동東녘 두던 밧긔 크나 큰 너븐 들히	동쪽 언덕 밖 크나 큰 넓은 들에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ᄒᆞᆫ빗치 되야 잇다	넓디 넓은 누런 빛이 한 빛이 되었구나
중양重陽이 거의로다 내노리 ᄒᆞ쟈스라	중양절이 가깝구나 들놀이(또는 고기잡이) 하자꾸나.
블근 긔 여믈고 늘은 닭기 솔져시니	붉은 게 여물었고 늙은 닭은 살져 있으니
술이 니글션정 버디야 업슬소냐	술이 익었으니 벗이 없겠는가
전가田家 흥미興味ᄂᆞᆫ 날로 기퍼 가노매라	농가의 흥미는 나날이 깊어 가는구나.
살여ᄒᆞᆯ긴 몰래예 밤블이 ᄇᆞᆯ가시니	살여울(물살이 빠른 여울) 긴 모래(밭)에 밤 불이 밝았으니
게 잡ᄂᆞᆫ 아히들이 그ᄆᆞᆯ을 흣텨 잇고	게를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흩어 놓고
호두포狐頭浦 엔 구븨예 아젹믈이 미러오니	호두포 먼 굽이에 밀물이 밀려 오니
돗ᄃᆞᆫ뷔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ᄑᆞᄂᆞᆫ 댱ᄉᆡ로다	돛단배 뱃노래는 고기 파는 장사로다.
경景도 됴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랴	경치도 좋거니와 생활이라 괴로우랴.
5. 본사4 동경	
ᄀᆞᆯ히 다 디나고 북풍北風이 노피 부니	가을이 다 지나고 북풍이 높이 부니
긴 하ᄂᆞᆯ 너븐 들히모설暮雪이 ᄂᆞ니더니	긴 하늘 넓은 들에 저녁눈이 날리더니
이윽고 경락境落이 각별各別ᄒᆞᆫ천지 되야	이윽고 빈 마을이 특별한 세상이 되어
원근遠近 봉만峯巒은 백옥白玉을 믓거 잇고	가깝고 먼 봉우리는 백옥(원관념:봉우리)을 묶었고
야당野堂 강촌江村을 경요瓊瑤로 ᄭᅮ며시니	들판의 강촌을 구슬 세계(원관념:눈 덮인 겨울경치)로 꾸몄으니
조화造化 헌ᄉᆞᄒᆞᆫ줄 이제야 더 알과라	조물주가 야단스러운 줄 이제야 더 알겠구나
천기늠렬天氣凜烈ᄒᆞ야 빙설이 싸혀시니	추위가 살을 에고 얼음과 눈이 쌓였으니
교원郊園 초목草木이 다 최절摧折ᄒᆞ얏거ᄂᆞᆯ	시골 뜰 초목이 다 기운이 꺾였거늘
창밧긔심근 매화梅花 암향暗香을 머곰엇고	창 밖에 심은 매화 그윽한 향기를 머금었고
재 우희 셔 잇ᄂᆞᆫ 솔 프른 빗치 의구依舊ᄒᆞ니	고개 위 소나무는 푸른 빛이 예와 같으니
본ᄃᆡ 삼긴 절節이 세한歲寒ᄒᆞ다 변變ᄒᆞᆯ소냐	본디부터 생긴 절개 날이 차다고 변할 것이냐
압뫼히자던 안개 힛빗ᄎᆞᆯᄀᆞ리오니	앞 산에 자던 안개 햇빛을 가리우니
죽림竹林의 ᄲᅮᆯ린 서리 몯 미처 노갓고야	대 숲에 뿌린 서리 미처 녹지 못했구나
소노小爐ᄅᆞᆯ 나외 혀고 창窓을 닷고 안자 이셔	향로를 내어 켜고 창을 닫고 앉아 있어
일주一炷 청향淸香의 세념世念이 그치시니	한 줄기 맑은 향기에 세상 생각(근심)을 그쳤으니
단표簞瓢 뷔다 ᄒᆞ야 흥興이야 업슬소냐	밥그릇과 물병이 비었다고 흥이야 없을 것이냐
내 건너 ᄉᆞᆫ뫼 아래 거친 ᄆᆞᄋᆞᆯ두서 집이	냇물 건너 딴 산 아래 거친 마을 두세 집이
노수시문老樹柴門애 섯건 ᄂᆡ 빗겨시니	늙은 나무 사립문에 섞인 안개 비꼈으니

의회依檜ᄒᆞᆫ우타리 화도중畫圖中 가ᄐᆞᆯ시고	어렴풋한 울타리가 그림 속 같구나
우양牛羊이 ᄂᆞ려오니 오ᄂᆞᆯ도 져믈거다	소와 양이 내려오니 오늘도 저물었다
석문石門 노픈 봉峰애 석양夕陽이 ᄇᆞᆯ갓ᄂᆞᆫᄃᆡ	석문봉 높은 봉우리 석양이 밝았는데
우러 녜ᄂᆞᆫ 기려기 가ᄂᆞᆫ ᄃᆞᆺ 도라오니	울고 가는 기러기가 가는 듯 돌아 오니
형양衡陽이 아니로ᄃᆡ 희안봉은 여긔런가	형양은 아니지만 희안봉(기러기가 갔다돌아온다는곳)이 여기인가
사양斜陽 긴 ᄃᆞ리예 오명가명 ᄒᆞᄂᆞᆫ 행인	석양 긴 다리에 오며 가며 하는 행인
어ᄃᆞ러 향向ᄒᆞ노라 뵈얏비 ᄀᆞᄂᆞᆫ다	어디를 향하는가 바삐도 가는구나
용산龍山 외로운 뎔 언제브텨 잇돗던고	용산 외로운 절 언제부터 있었던가
경자磬子 ᄆᆞᆫ근 소릐 ᄇᆞ람 셧거 디나가니	맑은 풍경 소리 바람 섞여 지나가니
알외라 늘근 즁이 예불禮佛ᄒᆞᆯ져기로다	알겠구나 늙은 중이 예불할 시간이구나
강교江橋 ᄎᆞᆫ남긔 명색瞑色이 가다가니	강다리 가득한 나무 어둠에 짙어지니
서아ᄂᆞᆫ ᄂᆞ라들고 프른 뫼히 멀리 뵌다	까마귀는 둥지를 찾고 푸른 산은 멀리 뵌다
한수閑愁를 못 금ᄒᆞ야 ᄑᆞ람을 기리 불고	시름을 말리지 못해 휘파람을 길게 불고
수죽脩竹을 지혀이셔 ᄃᆞᆯ빗ᄎᆞᆯ기ᄃᆞᆯ오니	긴 대나무 의지하여 달빛을 기다리니
술 구ᄌᆞᆫ녈 구로미 ᄀᆞ릴 쥬리 므ᄉᆞ일고	심술 궂은 지나던 구름 (달을) 가릴 줄이 무슨 일인가
장풍長風이 헌ᄉᆞᄒᆞ여 옥우玉宇를 조히 쓰니	센 바람이 요란하여 옥우(집=월선헌)를 깨끗이 쓸어가니
일편빙륜一片氷輪이 ᄆᆞᆯ고 빗치 네로왓다	한 조각 얼음달이 맑은 빛이 예와 같다.
천암만학千岩萬壑이 슬ᄏᆞ지 ᄆᆞᆯ가시니	봉우리와 골짜기가 실컷 맑았으니
단대檀坮 늘근 솔이 가지를 헤리로다	대 위에 늙은 솔의 가지를 헤아리겠구나(그만큼 밝다)
소렴疏簾을 고텨것고 기픈 밤의 안자시니	성긴 발 다시 걷고 깊은 밤에 앉았으니
동봉東峯 도ᄃᆞᆫ ᄃᆞᆯ이 서령西嶺의 거리도록	동쪽 봉우리에서 돋은 달이 서쪽 고개에 걸리도록(밤이 늦도록)
쳠영檐楹이 치빗최여 침석枕席의 쏘야시니	처마와 기둥에 다 비추고 잠자리에 쏘았으니
넉시 다 ᄆᆞᆰ으니 몽매夢寐ᄃᆞᆯ 이실소냐	넋이 다 맑았으니 꿈이라도 있을소냐
어와 이 정경情景 갑시 이실 거시런ᄃᆞᆯ	어와, 이 경치 값이 있을 것이라면
적막히 다든 문門애 ᄂᆡ 분분으로 드러오랴	적막하게 닫힌 문에 내 분수로 들어오랴
사조私照 업다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사사로이 비추는 햇빛이 없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로구나
모쳠茅檐에 비친 빗치 옥루玉樓라 다ᄅᆞᆯ소냐	초가처마 비친 빛이 옥루라고 다를 것인가(부럽지 않음)
청준淸樽을 밧비 열고 큰 잔의 ᄀᆞᄃᆞ부어	맑은 술동이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죽엽竹葉 ᄀᆞᄂᆞᆫ 술론 ᄃᆞᆯ빗 조차 거후로니	죽엽주 맑은 술을 달빛 따라 기울이니
표연飄然ᄒᆞᆫ일흥逸興이 져기면 ᄂᆞᆯ리로다	가벼운 흥겨움에 잘하면 (신선되어)날겠구나(신선이 부럽지 않음)
이적선李謫仙이 이러ᄒᆞ여 ᄃᆞᆯ을 보고 미치ᄃᆞᆺ다	이적선(이태백)이 이러하여 달을 보고 미쳤구나

6. 결사 춘하추동春夏秋冬 경물景物이 아롬답고 주야晝夜 조모朝暮애 완상玩賞이 새로오니 몸이 한가閑暇ᄒᆞ나 귀눈은 겨를 업다 여생餘生이 언마치리 백발白髮이 날로 기니 세상世上 공명功名은 계륵鷄肋이나 다를소냐 강호江湖 어조魚鳥ᄋᆡ새 밍세 깁퍼시니 옥당玉堂 금마金馬의 몽혼夢魂이 셧기였다 초당草堂 연월煙月ᄋᆡ시롬업시 누워 이셔 촌주村酒 강어江魚로 종일취終日醉를 원願ᄒᆞ노라 이 몸이 이러구름도 역군은亦君恩 이샷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가 아름답고** **밤낮 아침저녁 놀며 마음껏 감상하는 것이 새로우니** **몸은 한가하나 귀와 눈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느라) 겨를이 없다** **남은 생애 얼마인가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의 공명은 계륵과 다를 것이냐** **강호에서 어조와 새 맹세가 깊었으니** **옥당과 금마(세속적 가치)에 꿈속의 넋이 섞이었다** **초가집 달빛아래 시름없이 누워 있어** **거친 술과 물고기 안주로** **종일 취하기 원하노라** **이 몸이 이리 지냄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